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18호 현대불교  
2009년 2월 11일(음력 1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인생이 한 철이예요! 좀 너그럽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을 한다면, 어떤 거든지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도, 인간의 수명도 모두 사는 데까지는 그냥 살 거다 이겁니다. 사는 날까지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는 날까지 여여하게 살다가... 나는 간다 뭐 어쩌다 표시로써 3·4·5년씩 또 1·2년씩 아프게 만들어서 온통 바깥으로 소문을 죄 내고 이렇게 해서 웃을 벗는 게 아니고, 웃 벗기 전에 가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와서 웃을 벗고, 새 웃을 입고 재차 그냥 세상으로 나가죠. 이렇게 좋은 법을 어찌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픈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시마는 정말 죽는다고 했을 때의 고통, 죽지 않아도 항상 고통을 받으면서 지겹게 아픈 사람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럽고 살면 될 합니까? 이력하고 살면 될 하는나고 입으로도가 몇 번씩 외우면서도 그걸 겪어야 하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너무나 지겨워서 때로는 약을 먹고라도 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하면 뭐 합니까?

생시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면 미리 자리부터 만들어 놓고... 왜 우리가 이사가 가려면 집 먼저 사 놓고 이사를 가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웃을 흘려 버리고 그냥 가면 아픔으로 고통받지도 않을 거고, 그게 다 업이니까요. 또 자기 차원을 마음대로,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 자꾸 할 필요도 없지만 말입니다.

질문 없어요? 오늘은 질문하는 날인데...

**질문자(1남)**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작은 선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생사 윤회를 하는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어서...

**큰스님** 덕의 몸품이든 생명체가 더불어 공생으로 같이 사는 한 개체예요. 개체가기 때문에 선이다, 선이 아니다 이런 것이 들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악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작용하는 것을 옹무라고 그랬어요. 옹무! 공법이죠,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풀 아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선심(善心)이라고 그러죠. 선심! 선심으로써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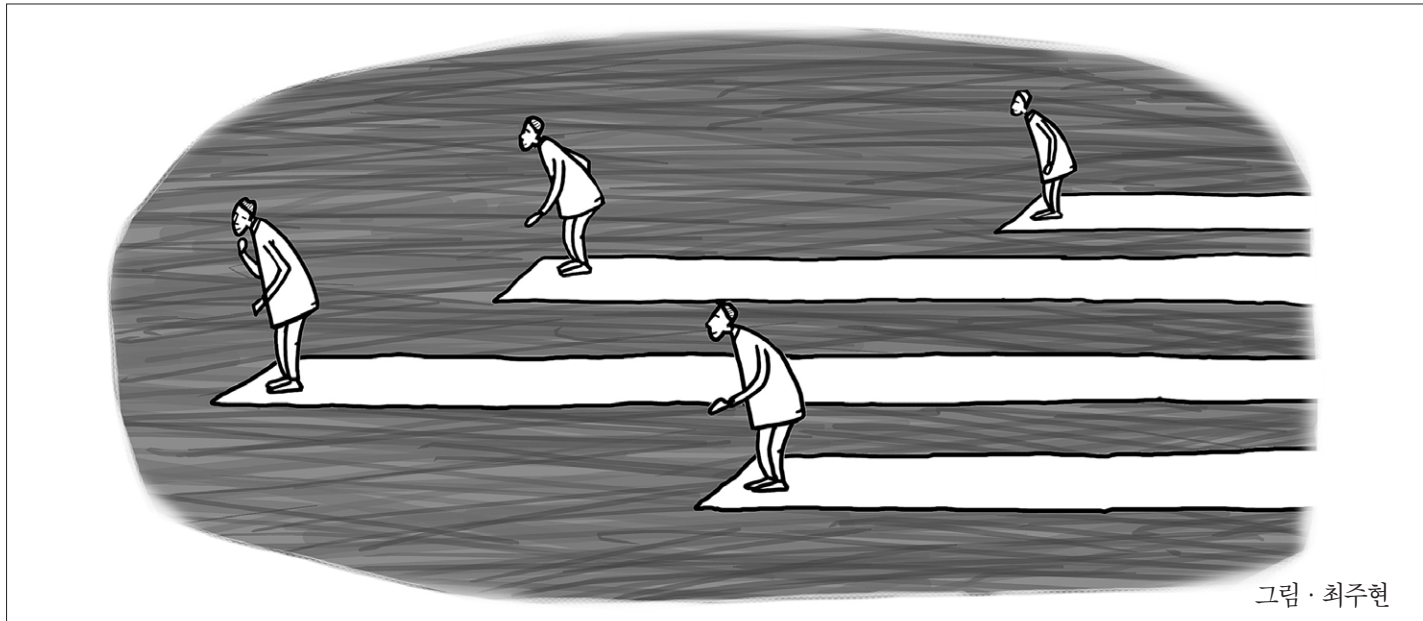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니게 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1남)** 큰스님께서서는 도를 이루시고 이 세상에 나오셔서 포교활동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생사에 윤회하는 그런 쪽이 아닌지 싶어서 질문합니다.

**큰스님** 나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한 도리를 깨달게 되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또 내가 깨달았다 는 것도 없고, 했다는 것도 없어. 지금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없다 이 소리야.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은 항상 그냥 돌이 아닌 깨달아야. 이 한 지구덩이 안에는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짝 있고, 또 우주에도 별성과 더불어 블랙홀이랄까 이런 큰 별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 작은 별을 낳고 큰 별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자꾸 껍데기를 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살이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수명이 길고 짧고 이런 게 좀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깨달음이 없다 있다는 말할 수 없는 거지,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 봐, 덕의 몸통이 속에 생명들이 따로따로 있어? 따로따로 있지 않지. 더불어 같이 있는 그 생명들 때문에 자기가 움직거리게 됐고, 보게 됐고, 듣게 됐고, 먹게 됐고, 만나게 되고, 가고 오게 되고 그런 것이지,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물 한 컵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을 먹었다고 할 텐가, 내가 물을 먹었다고. 그래서 깨달음도, 윤회도, 윤회라는 언어도, 팔자 운명도 다 없어.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려고 나는 또

듯한 방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은 추운 데 썼으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몸뚱 바가 없었어. 따로따로 본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는 좀 먼저 추운 데서 살았었고, 허허허... (대중 웃음) 여러분은 좀 나중에 추운 데 썼을 뿐이야. 그런 걸 생각한다면 모두 죽은하고 친근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묶여져서, 그 아름다운 자비로써 마음의 향기를 뽕고 서로 응(應)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나 혼자만 일생 동안 내내 뜨듯한 방에서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속임수나 쓰고 이렇게 한다면, 이 은 누리가 나를 다 그냥 짓이겨서 가루로 만든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말이야.

내가 그전에도 추운 데 있으면서 뭇을 생각했느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약하고 선한 것도 없었지. 그렇게 알고 나서는 밤새도록 너무 많이 울었어. 또 스님네들이 공부할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그냥... 그건 내가 말 못해, 허허허... 그렇게 겪어 나오고, 중국에서 인도로 가면서 죽어 넘어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면서 공부하던 그 스님네들이 길을 가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쓰러졌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려서 그분들을 다 위로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 '이 고생하고 못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가루가 되리라.' 이렇게도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죽어서 가루가 됐어. 허, 정말 죽어서

가루가 됐다고.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가 있듯이,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하듯이, 가루가 돼서 일체를 다 두루 뿌려서 해도 그 자리에 딱 하나는 되남듯이 말이야. 그 뜻을 알겠어? 그러니 그걸 스스로 알게끔 공부 열심히 해. 또 질문할 사람 없어요?

**사회자** 한 분만 질문 더 받았습니까.

**큰스님** 예, 질문하시게 하세요. 이래도 일 초 저래도 일 초인데요, 뭐.

**질문자(2남)** 강동지원에서 왔습니다. 언제나 저희들 손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쥐어 주셔서 늘 감사함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문제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1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꿈을 꾸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한 3, 4일 지났는데 묘 자리에서 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관 주위에 금붙이가 짙 돌아가며 있었습니. 그래서 잘못 팔았고 해서 다시 되돌으며 보니까 그 주위에 붉은 꽃들이 쪽 보였습니. 그리고 한 3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불심이 참 돈독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법을 함께 만나지 못했던 거를 제가 아쉽게 생각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공원묘지에 가서겠다고 그래서 공원묘지에다가 장지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애야, 내가 너희들 산소 마련한 곳에 가 봤는데 참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세월이 지났는데 작년쯤부터 어느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또 자꾸 보이고, 어느 날은 또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니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에 살던 그 농촌집 밭에 물이 가득하면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습니.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큰일났다고 그랬더니 비가 잠차 멎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15년 가까이 자주 꿈꾸지는 바람에 제가 늘 '주인공' 일체제불과 조상님이 한마음인데 이 시봉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너는 알려줄 수 있잖아.' 그런 관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

그리고 지난 달 안양 문예회관에서 큰스님께서 법문하신 이후에 저희 지원장 스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10여 년 지난 이후에 자주 일어나는데 그 해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관은 하지만 뭔가 잡히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마음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건 아니고, 그냥 조상님들을 위해서 재를 좀 올려 드리면 어떻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좀더 관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면서 또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에 '너만이 그것을 이 아둔한 시봉자에게 분명히 알려 줄 수 있잖아.' 하는데도 여전히 속세로 남아 있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뜻하지 않게 돼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그 속세를 그냥 놔둘까요, 이떡할까요?  
**질문자(2남)** 그래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스님** 님이 형성되기 전은, 바로 전에 살던 자기 조상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지금 사는 거는 바로 자(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항상 '죽어야 본다' 이러죠? 그럼 그거를 한번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공한 도리를 알면 죽은 것이다' 라는 거요. 공한 도리를 알면 죽었고, 또 어머니가 죽었다 이러죠? 어머니가 죽은 거는, 하늘과 땅이 전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생(生)하죠.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다 그랬죠? 다 돌아가셨으니까 천(天)·지(地)·

26면으로 계속

통도사에서 배우는 인도문화

## 산스끄리트(범어) 기초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본사 통도사 내 서축암 도웅스님이 인도 등 외국에서 20여 년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문화의 관습과 언어를 겸한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산스끄리트어나 팔리어 원전을 연구하기 위한 분들과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산스끄리트(범어) 기초 배움방을 마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내 용 : 산스끄리트(범어) 기초강의 (인도문화와 접목한 강의)
- ▶ 대 상 : 산스끄리트(범어)에 관심있는 분이든 누구나
- ▶ 교 재 : 범어 연습장 (도웅 스님 편찬)
- ▶ 강 사 : 서축암 감원 도웅 스님
- ▶ 모집인원 : 약간명
- ▶ 기 간 : 6개월 과정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4시 (주 1회, 3시간 강의)
- ▶ 개 강 일 : 2009년 3월 7일
- ▶ 입 학 금 : 10만원 ▶ 장 소 : 통도사 내 서축암 배움방

ॐ  
संस्कृत  
शिक्षा  
पत्रम्

• 문의전화 • ☎ (055)381-9666 •

## 정월방생 및 성지순례

각 사람 대덕큰스님께 아랍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無子孫 千年香火地)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 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 귀신사 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사전예약)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